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종전선언' 승부수

### 대화 교착 '툭다운 해법' 모색...돌파구 절박 정부 로드맵 결산...북, 호응 가능성엔 물음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면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을 극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이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 북한 대표부 자리에는 3등 서기관이 앉아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연설은 일반토의의 마지막 날인 27일에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면,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런 언급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던 2018년 유엔총회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교환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남북미 정상에 보여준 툭다운 행보가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응급처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로 툭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역으로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설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위기감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5번의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항상 그 시기의 남북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

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

북정책의 결산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의 태도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종전선언 주제로 언급된 미국이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의 치열한 논의없이 진행되는 종전선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판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연합뉴스

## ‘대장동’ 격돌...이재명 “부정 있으면 후보 사퇴”

### 이낙연 “역대급 일확천금” 박용진 “화천대유만 대박” 추미에 “대장동은 야 전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지난 19일 광주·전남·전북 TV 토론회에서 ‘성남 대장지구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소수 업자가 1,100배 이득을 얻은 것은 설계 잘못이나, 아니면 설계에 포함된 것이냐”며 “평소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배치되는 결과다.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법학 공부하지 않았느냐. 1억원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 원을 투자받아서 25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면 50% 이익이나 250배 이익이나”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세력이 공격하면 그게 옳은 것이냐”며 “그들이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같은 당에서 동조하느냐”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모든 중앙언론이 문제 삼는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도 “어떤 구조이길래 화천 대유는 대박이 나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구조가 됐느냐”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당시 정책 책임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제가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반면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왼쪽부터)추미에·김두관·이재명·박용진·이낙연 후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야당의 선거전략”이라며 이 지사를 두둔했다.

그는 “시장의 조그마한 권한으로 총력을 다해 성과를 냈는데 왜 더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것은 방법이 소방관에게 더 빨리 못 가서 피해를 키웠느냐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낙연 후보는 불 끄려고

노력은 해봤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면 왜 따라가느냐”며 “언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절제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마저 안 하고 덕담을 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노력은 해봤느냐고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면 왜 따라가느냐”며 “언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언론개혁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절제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마저 안 하고 덕담을 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 정반대 결과

### KSOI, 윤석열 1위...KBS, 이재명 1위 전화면접·ARS 방식 응답률 차이 영향

추석 연휴를 맞아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한 반면,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28.8%, 이 지사는 23.6%를 받았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선 것은 4주 만이다.

이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15.4%),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13.7%), 유승민 전 의원 (2.9%),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 (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2.4%), 정의당 심상정 의원 (2.1%), 최재형 전 감사원장 (1.6%) 순이었다.

범진보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8.6%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이 전 대표가 22.6%로 추격세를 이어갔다. 그 외에 추 전 장관 (5.8%), 민주당 박용진 의원 (5.2%), 심 의원 (3.5%) 순이었다.

범보수권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30.0%를 기록, 윤 전 총장 (29.5%)과 초박빙 접전을 벌였다. 이어 유 전 의원 (9.8%), 안

대표 (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8%) 순이었다.

반면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7.8%로 윤 전 총장 (18.8%)을 9%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어 홍준표 의원 (14.8%), 이낙연 전 대표 (12.0%), 유승민 전 의원 (2.7%), 안철수 대표 (2.2%), 추미에 전 장관 (2.1%)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 37.0%, 이낙연 전 대표 24.2%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의원 30.2%, 윤석열 전 총장 21.8%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조사 방식의 차이가 꼽힌다. KSOI 조사는 무선 ARS로, KB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ARS 방식 조사는 윤 전 총장이, 전화면접 방식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한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 지지층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른바 ‘사이 보수’가 면접관이 직접 지지 후보를 묻는 전화면접에서 보다 응답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